가정간호학회지 제19권 제2호, 2012년 12월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Vol.19 No.2, 183-194, December, 2012

중년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 비교

한숙정[1] · 권명순[2] · 윤오순[3]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중년 인구는 약 17,387,524여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5%를 차지한다. 20대 이하는 전체 인구의 37.3%, 30~50대는 47.2%, 60대 이상은 15.5%로 중간 연령층이 많아 종형구조의 인구피라미드 양상을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 특히 중년기에 속해있는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는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나아지는 시대 속에서 사회활동을 하다가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직장에서 조기·명예퇴직 권고를 겪은 경제과실의 주 피해자이다(Sunwoo, 2011). 이 시기는 가족계획으로 인해 자녀 양육기간이 단축되면서 탈부모기가 장기화되고 경제상태가 나아지고 여가생활이 많아지면서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중년기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다(Nam, 2004). 또한 경제성장을 통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오래 사는 것에서 잘 사는 것으로 관심이 전환되어 삶의 의미를 물리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질적인 차원에 부여하고 있다(Lim, 2011).

삶의 질은 물질의 풍부와 보다 좋은 삶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에서 보건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삶의 질이라는 용어는 1960년데 중반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근래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생활의 질적 가치, 즉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는 삶의 질이 국가의 발전정책을 만들고 평가하는데 새로운 개념적인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Szalai, 1980). 나아가 생명의 보존과 수명연장에만 역점을 두어 온 의학적 가치관에서 점차 생의 의미와 대상자의 질적인 삶이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McDowell & Newell, 1987).

Johnson, McCaulllet와 Copley(1982)는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개인이 표현하거나 경험한 주관적인 만족으로 정의하였으며, Young과 Longman(1983)은 현재 삶의 상황에 대한 지각된 만족 정도라고 정의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 외에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여 각 영역에서 개인이 지각한 안녕이라고 하였다. Padilla와 Grant(1985)는 정서적 안녕, 신체적 안녕, 신체상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삶의 질로 보았고, Ferrans(1996) 그리고 Ferrans와 Powers(1992)는 삶의 질을 건강과 기능, 사회·경제적 상태, 심리적·영적상태, 가족상황의 영역들 내에서 개인에게 중요한 측면의 만족에 의한 안녕감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삶의 질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영역의 확장과 동시에 새로운 영역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중년기에 이르러 신체, 심리, 사회, 가족관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갑자기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에 회의를 갖게 되면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삶의 가치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Lee, 1999). 중년 여성은 갱년기 신체적 증상과 우울, 외로움, 실패감과 같은 정신사회적 문제들을 다양

주요어 : 삶의 질, 중년
1)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교신저자 E-mail: kwon1314@hallym.ac.kr)
3) 삼육보건대학 간호과, 교수
투고일: 2012년 11월 17일 수정일: 2012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3일

하게 경험하는 시기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Choi & Ha, 2009; Seo, 2010), 중년 남성은 결혼 후 일생을 일과 자녀 양육에 전념하며 삶의 의미를 가족의 건강, 화목, 자녀의 성공 등 자신보다는 가족에 두는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오다가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중년 남성이 경험하는 의미와 목적의 상실은 중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Lee, 1999). 이상과 같이 성별로 경험하는 중년기의 상태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삶의 질 관련 연구는 대부분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Choi, 2006; Kim, 2010; Shin & Yang, 2003),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2002; Lee, 2007)나 중년기의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한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Chung & Lee, 2012; Lim, 2011)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다.

중년기는 아직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며, 자녀들의 삶을 지지해 주고 이끌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중년들은 곧 은퇴를 하게 될 것이고 노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 자원들을 재평가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미래에 가정이나 지역사회, 국가의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에서 중년의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Jeon, 2010).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의 차이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년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 정도를 비교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중년 여성과 남성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을 파악한다.
- 중년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 영역 중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 정도를 비교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년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을 비교한다.

용어 정의

● 중년

본 연구에서는 Kim과 Kwon(2000)이 제시한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중년으로 보았다.

● 삶의 질

삶의 질이란 건강과 기능, 사회·경제적 상태, 심리적·영적 상태, 가족상황의 영역 내에서 개인에게 중요한 측면의 만족에 의한 안녕감이다(Ferrans, 1996; Ferrans & Powers, 1992).

본 연구에서는 Ferrans와 Powers(1992)의 Quality of Life Index(QLI)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 여성과 남성의 삶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하고 두 가지의 차이로 발생하는 삶의 질을 비교하고자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서울시 거주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협조해줄 것을 동의한 사람들에게 구두동의를 받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한 후에 회수하였다. 총 503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482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상자 수는 이원분산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02로 하였을 때 434명이므로 대상자수는 충족되었다.

3. 연구 도구

●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Ferrans와 Powers(1992)가 일반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33문항으로 구성된 Quality of Life Index-Generic version III로 측정하였다. So 등(2004)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Quality of Life Index-Cancer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Quality of Life Index-Generic version III와 문항이 같기 때문에 So 등(2004)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역번역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첫 번째 부분은 삶의 질에 대한 대상자의 중요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은 동일한 문항의 삶의 질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 두 부분의 하부영역은 신체적 건강과 기능(health and functioning), 사회·경제적 상태(socioeconomic), 심리적·영적(psychological/spiritual), 그리고 가족(family)의 4개의 하부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6점으로 되어있으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매우 불만족한다' 1점부터 '매우 만족 한다' 6점으로 되어있으며, '삶의 질 점수는 Ferrans와 Powers(1998)가 개발한 프로토콜에 의해 계산되었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중요도는 Cronbach's alpha=.96로 전체 삶의 질 도구의 Cronbach's alpha=.93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삶의 만족도와 중요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남녀 성별에 따른 비교는 t-test 혹은 χ^2-test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 성별에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2-way ANOVA로 분석하였고, 각각의 일반적 특성 변수와 남녀 성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아 주효과 모형만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범위는 40~64세로 평균 연령은 48.7세(±5.8)이었으며, 연령분포는 45세 이하가 33.4%로 가장 많았다. 기혼자가 92.7%로 대부분이었고, 결혼기간은 평균 21.7년(±10.2)이었으며, 여성의 결혼 연령이 남성보다 빨라 여성은 평균 23.9년(±12.0년)이 남성 평균 19.8년(±7.8)보다 결혼기간이 유의하게 길었다(t=4.13, p<.001).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55.7%로 가장 많았으나 남성은 대졸이상이 64.8%로 고졸 30.9%의 2배가 넘었으나, 여성은 고교졸업 43.6%와 대졸이상 44.7%로 유사하여 남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22.81, p<.001). 종교가 있는 사람이 61.3%이었고, 남성 57.3%에 비해 여성이 66.1%로 많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3.86, p=.049).

자신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이 23.7%이었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 2.5%이었고, 자녀수는 평균 2.0명(±0.7)이었다. 동거가족 수는 평균 3.0명(±1.2)이었고, 하루 중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평균 3.7시간(±2.8)이었고, 여성은 평균 4.3시간(±3.3)으로 남성의 평균 3.3시간(±2.3)보다 유의하게 많았고(t=4.08, p=<.001), 하루 3시간 이상 함께하는 여성은 50.9%로 남성 36.9%보다 유의하게 많았다(χ^2=9.39, p=.003).

직장이 있는 사람이 75.5%이었고, 남성 83.1%로 여성 66.5%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χ^2=17.89, p<.001), 남성은 전문직 22.6%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무직 27.1%로 많아 직종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45.95, p<.001). 건강상태는 74.0%가 좋다고 하였으나, 남성 79.3%와 여성 67.7%가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여 남성이 유의하게 많았다(χ^2=8.33, p=.004).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65.3%이었고, 남성 69.7%로 여성 60.0%보다 유의하게 많았고(χ^2=4.99, p=.026), 1주일에 평균 101.1분(±101.6)정도 운동을 하며, 남성은 평균 117.6분(±113.0)이었고, 여성은 평균 61.2분(±47.3)으로 남성이 유의하게 운동시간이 길었다(t=5.28, p<.001).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은 49.1%이었고, 남성 59.8%와 여성 36.1%로 남성이 유의하게 많았다(χ^2=26.47, p<.001). 용돈은 월 평균 35만 3천원이었고, 남성은 평균 40만 7천원이었고, 여성은 평균 28만 3천원으로 남성이 유의하게 많았다(t=3.67, p<.001). 월 평균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36.2%, 201-300만원 23.9%, 301-400만원 22.1%의 순이었으나, 남성은 301-400만원 31.8%이고 여성은 200만원 이하가 59.1%로 가장 많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93.81, p<.001)<Table 1>.

대상자의 삶의 질

삶의 질은 각 항목마다 중요도와 만족도로 분류하여 분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82)

Characteristics	Total (n=482)		Women (n=221)		Men (n=261)		t or χ^2	p
	N (%) or Mean±SD		N (%) or Mean±SD		N (%) or Mean±SD			
Age group								
≤45	161	33.4	69	31.2	92	35.2	5.78	.123
46-50	134	27.8	71	32.1	63	24.1		
51-55	128	26.6	51	23.1	77	29.5		
≥56	59	12.2	30	13.6	29	11.1		
	48.7±5.8		48.9±5.6		48.7±5.9		0.38	.7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Continued) (N=482)

Characteristics	Total Mean (SD) or N	Total (%)	Women Mean (SD) or N	Women (%)	Men Mean (SD) or N	Men (%)	t or χ^2	p
Marriage status								
Single	12	2.5	6	2.7	6	2.3	2.31	.315
Married	447	92.7	201	91.0	246	94.3		
Other	23	4.8	14	6.3	9	3.5		
Marriage duration(yr)	21.7±10.2		23.9±12.0		19.8±7.8		4.13	<.001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37	7.8	26	12.1	11	4.3	22.81	<.001
High school	173	36.5	93	43.6	80	30.9		
≥College	264	55.7	96	44.7	168	64.8		
Religion								
Have	295	61.3	146	66.1	149	57.3	3.86	.049
Don't have	186	38.7	75	33.9	111	42.7		
House								
Owned	367	76.3	174	78.7	193	74.2	1.34	.247
Other	114	23.7	47	21.3	67	25.8		
Child								
Have	463	97.5	211	97.7	252	97.3	0.07	.789
Don't have	12	2.5	5	2.3	7	2.7		
Number of child	2.0±0.7		2.0±0.7		2.0±0.6		0.06	.955
Number of family living with	3.0±1.2		3.4±1.2		3.4±1.1		0.04	.965
Family time a day(hr)	3.7±2.8		4.3±3.3		3.3±2.3		4.08	<.001
Family hour group								
≤3 hours	266	56.7	105	49.1	161	63.1	9.39	.003
>3 hours	2.3	43.3	109	50.9	94	36.9		
Job								
Work	364	75.5	147	66.5	217	83.1	17.89	<.001
Don't work	118	24.5	74	33.5	44	16.9		
Type of job								
Professional	115	23.9	56	25.3	59	22.6	45.95	<.001
Administrative	50	10.4	9	4.1	41	15.7		
Technical, sales	56	11.6	18	8.1	38	14.6		
White-collar	59	12.2	17	7.7	42	16.1		
Services engaged	70	14.5	38	17.2	32	12.3		
Blue-collar	13	2.7	8	3.6	5	1.9		
Unemployed	99	20.5	60	27.1	39	14.9		
Health status								
Good	356	74.0	149	67.7	207	79.3	8.33	.004
Not good	125	26.0	71	32.3	54	20.7		
Exercise								
Do	314	65.3	132	60.0	182	69.7	4.99	.026
Don't	167	34.7	88	40.0	79	30.3		
Exercise/week (minutes)	101.1±101.6		61.2±47.3		117.6±113.0		5.28	<.001
Hobby								
Have	234	49.1	78	36.1	156	59.8	26.47	<.001
Don't have	243	50.9	138	63.9	105	40.2		
Pocket money/month(10,000won)	35.3±38.8		28.3±20.3		40.7±47.8		3.67	<.001
Monthly income(10.000won)								
≤200	167	36.2	120	59.1	47	18.2	93.81	<.001
201-300	110	23.9	45	22.2	65	25.2		
301-400	102	22.1	20	9.9	82	31.8		
≥401	82	17.8	18	8.8	64	24.8		

하였다. 우선 삶의 중요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문항의 평균점수는 여성이 평균 4.94점(±0.57)으로 남성의 평균 4.85점(±0.5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문항별로 분석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중요도가 유의하게 높은 문항은 9개로 건강(p=.002), 전반적인 행복(p=.004),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p=.040), 가족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도움(p=.003), 삶을 조절하는 능력(p=.035), 친구(t=2.56, p=.011), 건강관리(p<.001), 가족이외의 사람들로부터의 정신적 도움(p=.004), 이웃(p=.003)의 순이었다. 반면, 남성은 성생활(p=.011) 한 문항에서만 여성보다 삶의 중요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중요도가 높았으나 8개 문항, 즉 장수하는 것, 가족의 건강, 자녀, 배우자, 가족에 대한 책임수행, 자신의 직업, 직업을 갖는 것, 개인적 목표성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중요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삶의 만족도 전체문항의 평균은 여성이 평균 4.06점(±0.66)으로 남성은 평균 4.14점(±0.64)보다 약간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문항은 5개로 통증(p=.026), 일상 활동을 위한 기운(p=.018), 외모(p=.004), 가족에 대한 책임수행 능력(p=.037), 배우자(p=.001)의 순으로 낮았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나 6개 문항인 친

<Table 2> Comparison of the Importance of the Life between Middle aged Men and Women (N=482)

		Women		Men		t	*p*
		Mean	SD	Mean	SD		
Health and functioning subscale							
1	Health	5.44±0.79		5.19±0.92		3.19	.002
2	Health care	4.92±0.85		4.62±1.01		3.61	<.001
3	Pain	5.07±1.00		4.92±1.03		1.59	.112
4	Energy(fatigue)	5.19±0.85		5.04±0.85		1.86	.064
5	Ability to take care of yourself without help	5.31±0.83		5.15±0.89		2.05	.040
6	Control over life	5.22±0.84		5.05±0.89		2.12	.035
7	Chances for living as long as you would like	4.76±1.10		4.84±0.97		0.80	.426
11	Sex life	4.58±1.17		4.84±0.99		2.57	.011
16	Ability to take care of family responsibilities	5.32±0.81		5.36±0.79		0.67	.501
17	Usefulness to others	4.89±0.87		4.85±0.83		0.53	.599
18	Worries	5.18±0.88		5.07±0.92		1.33	.185
25	Things for fun	4.97±0.89		4.86±0.99		1.22	.225
26	Chances for a happy future	5.42±0.75		5.35±0.77		0.89	.373
Social and economic subscale							
13	Friends	5.03±0.90		4.82±0.91		2.56	.011
15	Emotional support from people other than your family	4.85±0.92		4.60±1.00		2.91	.004
19	Neighborhood	4.73±0.94		4.46±1.06		2.99	.003
20	Home	5.07±0.89		4.95±0.89		1.42	.155
21	Job	5.02±0.98		5.13±0.81		1.26	.209
22	Not having a job	4.58±1.11		5.00±1.27		0.87	.389
23	Education	4.89±0.95		4.75±0.97		1.62	.107
24	Financial needs	5.13±0.83		5.10±0.83		0.41	.680
Psychological/Spiritual subscale							
27	Peace of mind	5.42±0.80		5.30±0.92		1.58	.115
28	Faith in God	4.69±1.21		4.50±1.36		1.70	.091
29	Achievement of personal goals	5.04±0.86		5.08±0.83		0.46	.647
30	Happiness in general	5.44±0.74		5.23±0.84		2.88	.004
31	Life satisfaction in general	5.39±0.81		5.26±0.82		1.81	.071
32	Personal appearance	4.50±0.99		4.45±1.11		0.47	.641
33	Self	5.25±0.97		5.09±0.94		1.95	.052
Family subscale							
8	Family health	5.53±0.78		5.54±0.71		0.16	.870
9	Children	5.54±0.81		5.56±0.71		0.35	.725
10	Family happiness	5.61±0.70		5.57±0.73		0.56	.575
12	Spouse	5.16±1.02		5.18±0.93		0.17	.869
14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5.25±0.82		5.01±0.89		3.00	.003
	Total	4.94±0.57		4.85±0.59		1.65	.101

구, 가족이외의 사람들로부터의 정신적 도움, 삶의 근심 정도, 이웃, 개인적 목표 성취정도, 전반적인 행복정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대상자의 삶의 질 영역 중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

삶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전체문항의 평균은 여성이 평균 3.78점(±3.47)으로 남성 평균 4.12점(±3.54)보다 적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한 문항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로부터의 정신적 도움(p=.035)이란 한 문항이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가 유의한 문항은 6개로 배우자(p=.002), 가족에 대한 책임수행 능력(p=.042), 성생활(p=.047), 일상활동을 위한 기운(p=.013), 외모(p=.004), 통증(p=.017)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낮았으나 5개 문항 즉 친구, 근심이 없는 것, 이웃, 개인적 목표성취, 전반적인 행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삶의 질은 중년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없었으며, 삶의 질 하부영역에서는 신체적 건강과 기능영역(p=.035)과 가족 영역(p=.050)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Table 3> Comparison of the Satisfaction of the Life between Middle aged Men and Women (N=482)

		Women		Men		t	*p*
		Mean	SD	Mean	SD		
Health and functioning subscale							
1	Health	3.89±1.15		4.10±1.21		1.93	.054
2	Health care	3.82±1.06		3.99±1.12		1.75	.081
3	Pain	3.83±1.20		4.07±1.16		2.23	.026
4	Energy(fatigue)	3.96±1.09		4.19±1.06		2.38	.018
5	Ability to take care of yourself without help	4.81±0.90		4.87±0.93		0.74	.458
6	Control over life	4.52±1.02		4.54±1.01		0.22	.826
7	Chances for living as long as you would like	4.08±1.02		4.18±1.09		1.09	.277
11	Sex life	4.19±1.12		4.34±1.13		1.52	.129
16	Ability to take care of family responsibilities	4.19±1.11		4.39±1.08		2.09	.037
17	Usefulness to others	4.21±0.98		4.30±0.95		1.07	.286
18	Worries	3.81±1.01		3.78±1.15		0.36	.723
25	Things for fun	3.64±1.24		3.81±1.21		1.62	.106
26	Chances for a happy future	4.22±1.20		4.32±1.10		1.00	.319
Social and economic subscale							
13	Friends	4.51±0.90		4.47±0.90		0.53	.598
15	Emotional support from people other than your family	4.32±1.01		4.15±0.94		1.94	.053
19	Neighborhood	4.15±0.89		4.02±0.89		1.57	.116
20	Home	4.27±1.16		4.28±1.20		0.08	.939
21	Job	4.26±1.10		4.33±1.19		0.56	.577
22	Not having a job	3.69±1.20		4.00±2.12		0.52	.606
23	Education	3.97±1.22		4.09±1.23		1.08	.279
24	Financial needs	3.83±1.21		3.98±1.17		1.46	.145
Psychological/Spiritual subscale							
27	Peace of mind	4.26±1.12		4.35±1.02		0.94	.350
28	Faith in God	4.37±1.20		4.38±1.22		0.09	.932
29	Achievement of personal goals	4.10±1.15		4.01±1.11		0.87	.383
30	Happiness in general	4.42±0.98		4.38±1.02		0.39	.695
31	Life satisfaction in general	4.29±1.04		4.31±1.08		0.16	.872
32	Personal appearance	3.97±0.99		4.25±1.09		2.92	.004
33	Self	4.11±1.03		4.29±1.08		1.88	.061
Family subscale							
8	Family health	4.39±0.99		4.51±0.95		1.27	.205
9	Children	4.77±0.98		4.83±1.01		0.65	.519
10	Family happiness	4.66±0.92		4.78±1.00		1.31	.190
12	Spouse	4.36±1.12		4.68±1.05		3.25	.001
14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4.52±1.11		4.64±1.00		1.28	.202
	Total	4.06±0.66		4.14±0.64		1.38	.169

<Table 4> Difference between Satisfaction and Importance (N=482)

		Women		Men		t	p
		Mean	SD	Mean	SD		
Health and functioning subscale							
1	Health	2.17±6.51		3.27±6.58		1.88	.061
2	Health care	1.70±5.46		2.56±5.54		1.73	.084
3	Pain	1.59±6.36		2.94±5.93		2.40	.017
4	Energy(fatigue)	2.42±5.90		3.72±5.65		2.49	.013
5	Ability to take care of yourself without help	7.11±5.10		7.40±5.39		0.63	.530
6	Control over life	5.49±5.41		5.51±5.55		0.05	.962
7	Chances for living as long as you would like	3.06±4.95		3.56±5.54		1.06	.289
11	Sex life	3.40±5.70		4.46±5.99		1.99	.047
16	Ability to take care of family responsibilities	3.78±6.21		4.92±6.19		2.04	.042
17	Usefulness to others	3.59±4.98		4.11±5.01		1.14	.255
18	Worries	1.63±5.43		1.47±6.06		0.30	.764
25	Things for fun	0.88±6.54		1.76±6.28		1.54	.125
26	Chances for a happy future	4.10±6.79		4.51±6.24		0.71	.477
Social and economic subscale							
13	Friends	5.32±4.88		5.08±4.64		0.56	.579
15	Emotional support from people other than your family	4.31±5.30		3.36±4.59		2.11	.035
19	Neighborhood	3.27±4.50		2.65±4.44		1.54	.124
20	Home	4.04±6.24		4.07±6.53		0.06	.949
21	Job	4.36±5.86		4.49±6.53		0.22	.826
22	Not having a job	0.65±6.44		2.70±12.07		0.38	.725
23	Education	2.57±6.54		3.22±6.27		1.13	.258
24	Financial needs	1.70±6.54		2.44±6.37		1.29	.199
Psychological/Spiritual subscale							
27	Peace of mind	4.30±6.29		4.63±5.76		0.61	.544
28	Faith in God	4.69±6.24		5.04±6.17		0.62	.533
29	Achievement of personal goals	3.17±6.15		2.71±6.03		0.86	.393
30	Happiness in general	5.14±5.67		4.77±5.88		0.71	.480
31	Life satisfaction in general	4.42±5.92		4.43±6.18		0.02	.987
32	Personal appearance	2.31±4.84		3.61±5.22		2.88	.004
33	Self	3.47±5.71		4.35±5.79		1.70	.090
Family subscale							
8	Family health	4.99±5.73		5.67±5.50		1.35	.176
9	Children	7.20±5.77		7.58±5.83		0.72	.471
10	Family happiness	6.65±5.37		7.30±5.79		1.29	.196
12	Spouse	4.99±5.85		6.62±5.71		3.11	.002
14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5.57±6.19		6.11±5.32		1.03	.302
	Total	3.78±3.47		4.12±3.54		1.05	.293

5>. 또한 중년여성과 남성에 상관없이 가족영역에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중년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을 비교해보니 성별에 따라 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교육수준, 종교, 주택소유유무, 월평균수입, 취미, 지각된 건강상태, 운동유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Table 6>.

삶의 질은 학력이 높을수록(F=7.80, p<.001), 종교가 있는 경우(F=4.52, p<.034),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F=13.2, p<.001),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F=7.13, p<.001) 취미가 있을 때(F=43.56, p<.001),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 일수 록(F=55.31, p<.001). 운동을 하는 사람(F=12.68, p<.001), 가족과 하루 3시간 이상을 보내는 사람이 유의하게 높았다(F=7.48, p=.006).

<Table 5>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N=482)

	Women		Men		t	*p*
	Mean	SD	Mean	SD		
Overall Quality of Life	18.81±3.70		19.33±3.73		1.54	.125
Health and Functioning Subscale	18.14±3.88		18.89±4.01		2.11	.035
Social and Economic Subscale	18.50±4.03		18.61±3.96		0.32	.750
Psychological/Spiritual Subscale	18.91±4.54		19.21±4.61		0.74	.463
Family Subscale	20.86±4.43		21.64±4.41		1.97	.050

<Table 6>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82)

Characteristics	Women (n=221) mean (SD)		Men (n=261) mean (SD)		Source	F	p
Age							
≤ 45	19.51	3.24	19.23	3.76	Sex	0.98	.323
46 - 50	19.11	3.75	19.15	3.57	Age	0.58	.632
51 - 55	18.46	3.98	19.43	3.84			
≥ 56	17.96	3.36	19.29	3.51			
Marriage status							
Single	18.63	2.38	17.74	6.57	Sex	0.83	.363
Married	19.06	3.53	19.32	3.61	Marriage	1.66	.192
Other	17.14	4.92	19.11	3.89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7.54	4.22	19.60	4.84	Sex	0.04	.838
High school	18.29	3.30	18.58	4.02	School	7.80	<.001
≥College	19.95	3.54	19.61	3.41			
Religion							
Yes	19.07	3.78	19.68	3.92	Sex	1.46	.228
No	18.65	3.30	18.72	3.32	Religion	4.52	.034
House							
Owned	19.25	3.55	19.62	3.64	Sex	1.52	.218
Other	17.73	3.67	18.29	3.72	House	13.2	<.001
Child							
Have	18.95	3.66	19.28	3.62	Sex	0.73	.395
Don't have	19.54	2.65	18.09	5.66	Child	0.17	.619
Monthly income(10.000won)							
≤200	18.14	3.85	17.80	3.44	Sex	0.65	.419
201-300	19.65	3.33	19.14	3.82	Income	7.13	<.001
301-400	20.00	3.00	19.46	3.53			
≥401	19.73	3.24	20.18	3.61			
Job							
Work	19.03	3.57	19.35	3.62	Sex	0.70	.403
Don't work	18.74	3.73	18.90	4.03	Job	0.83	.364
Hobby							
Have	20.30	3.48	20.19	3.41	Sex	0.48	.490
Don't have	18.25	3.44	17.92	3.70	Hobby	43.56	<.001
Health status							
Good	19.63	3.44	19.95	3.48	Sex	0.03	.867
Not good	17.40	3.52	16.71	3.35	Health status	55.31	<.001
Exercise							
Do	19.38	3.81	19.70	3.67	Sex	0.36	.551
Don't	18.32	3.19	18.29	3.58	exercise	12.68	<.001
Family hour							
≥3hrs	18.57	3.34	18.90	3.39	Sex	0.99	.318
<3hrs	19.49	3.77	19.85	4.20	Family hour	7.48	.006

논 의

본 연구는 중년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을 삶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해 확인하고 비교분석하고자 서울시 중년 남녀 482명의 자료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삶의 중요도의 경우 전체 삶의 중요도 점수는 여성과 남성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건강, 전반적인 행복,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 가족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도움, 삶을 조절하는 능력, 친구, 건강관리, 가족 이외의 사람들로부터의 정신적 도움, 이웃 등에 대한 항목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삶의 중요도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생활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중년기의 남성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성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의 전체적인 점수는 중년 여성과 남성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통증, 일상활동을 위한 기운(energy), 외모, 가족에 대한 책임수행 능력, 배우자 항목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항목별로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항목이 있었으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이 없었다. 이는 삶의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중년 여성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삶의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차이는 여성과 남성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가족 이외의 사람들로 부터의 정신적 도움에 대한 항목은 중년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중요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차이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 여성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로부터의 정신적 도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아 이 항목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남성의 삶의 중요도와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한 항목은 배우자, 가족에 대한 책임수행 능력, 성생활, 일상활동을 위한 기운(energy), 외모, 통증이었다. 이 결과는 중년 남성이 배우자, 가족에 대한 책임수행 능력, 성생활, 일상활동을 위한 기운(energy), 외모, 통증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중년 여성과 남성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삶의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년 여성과 남성의 총 삶의 질의 차이는 남성이 19.33점(±3.73), 여성이 18.81점(±3.70)으로 남성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삶의 질 하부영역 중 신체적 건강과 기능과 가족영역에서 남성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연구한 An(2010)에 의하면 여성보다 남성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중년기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것은 중년기 여성의 경우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와 폐경기, 급격한 신체노화로 인해 중년기 남성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큰 갈등과 혼란을 경험(Oh, 2011)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Chung과 Lee(2012)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년)와 11차년도(2008년)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삶의 만족도 도구는 한국노동패널에서 활용한 문항으로 '생활전체/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하나의 질문을 통해 1998년은 2.8점(±0.9)점에 비해 2008년 3.2점(±0.6)점으로 나타났고, 취업자 집단은 남성이, 비취업자 집단은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75.5%가 취업자이므로 남성의 삶의 질이 다소 높은 결과를 보인 것과도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Lim(2011)의 연구에서는 5문항 즉 '나는 현재 내 삶에 만족한다,'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지나온, 내 인생을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은 대체로 만족스럽다.' '앞으로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의 삶의 질은 높다.'라는 항목을 통해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년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삶의 질에 대한 측정항목과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Ferrans와 Powers(1992)에서 활용한 신체적 건강과 기능(health and functioning)영역, 사회·경제적 영역(socioeconomic), 심리적·영적(psychological/spiritual)영역, 그리고 가족(family)영역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중년여성과 남성 모두가 가족영역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은 가족영역, 심리적·영적영역, 사회·경제적 영역, 신체적 건강과 기능영역 순이었고 중년 남성은 삶의 질 점수의 높은 정도는 가족영역, 심리적·영적영역, 신체적 건강과 기능영역, 사회·경제적 영역 순이었다. 중년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의 질은 가족영역, 심리적·영적 영역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났고, 다음 순위로 중년 남성은 신체적 건강과 기능 영역의 삶의 질 점수가 높은 반면, 중년 여성은 사회·경제적 영역의 삶의 질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해석하면 중년여성은 삶의 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신체적 건강과 기능이고, 남성은 사회·경제적 영역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년여성은 신체적 건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고 남성은 사회·경제적 영역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대상은 다르나 동일한 삶의 질 도구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만성피로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점수는 12.50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고, 영역별 삶의 질 점수 순위로 보았을 때는 가족영역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고, 사회·경제적 영역, 심리적·영적영역, 신체적 건강과 기능영역 순이었다(Anderson & Ferrans, 1997). 타이완에서 노인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삶의 질 점수가 15.86점으로 본 연구보다 삶의 질이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삶의 질의 하부영역에서 가족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seng & Wang, 2001). 이외에도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들의 삶의 질은 대체로 20점 이상을 보여 본 연구보다 삶의 질이 높았으나 삶의 질 하부영역의 순위는 가족영역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임으로써(Anderson & Ferrans, 1997)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삶의 질 측정도구는 다른 것을 활용한 Lee(2002)의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 20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삶의 질은 160.67점/235만점이었고, 이를 3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20.5점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도구는 정서 상태, 경제생활, 자아 존중감, 신체 상태와 기능, 이웃관계 및 가족관계 등 6개 영역, 47개 항목에 대해 지각하는 안녕감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자아 존중감, 가족관계, 이웃관계, 정서 상태, 신체 상태와 기능, 경제적 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년 남성과 여성 251명을 대상으로 한 Han(2004)의 연구에서는 230점 만점 중 148.64점으로 나타났고, 이를 3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19.4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삶의 질을 보였다. 이 연구의 삶의 질 하부영역 순위는 가족관계, 이웃관계, 자아 존중감, 신체 상태와 기능, 경제생활과 정서 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로는, 비록 삶의 질 측정도구는 동일하지는 않았으나 삶의 질에 있어서 가족영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수입이 많을수록,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 가족과 함께 3시간 이상 지내는 사람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Chung과 Lee(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8년과 2008년도 두해 모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배우자가 있으며, 여가활동을 하며, 주거환경이 좋고, 가족관계가 좋으며, 임금 또는 보수가 높으며, 취업의 안정성이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hin과 Yang(2003)의 농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결혼상태, 종교, 가족형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또한 기혼자가 사별자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가 삶의 질이 높았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조사한 An(2010)에 의하면 높은 교육수준과 주관적 건강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Han(2004)의 연구에서는 운동시설 참여와 운동수행 정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삶의 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력, 가족동거 여부, 경제수준, 운동 유무, 건강상태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중년기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가족동거, 운동, 건강상태와 같이 현실적으로 변화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삶의 질에 대한 항목을 중요도와 만족도로 분류하여 개인의 중요도에 따른 만족도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여 삶의 질을 제시한 것으로써 의미가 있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삶의 질 도구는 4가지 하부영역, 즉 신체적 건강과 기능영역, 사회·경제적 영역, 심리적·영적영역, 그리고 가족영역을 포함한 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연구보다 좀 더 세밀하게 중년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인하여 기존의 연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안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 여성과 남성의 삶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중년 여성과 남성의 삶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중년 여성의 경우 가족이외의 사람들로 부터의 정신적 도움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성은 배우자, 가족에 대한 책임수행 능력, 성생활, 일상활동을 위한 기운(energy), 외모, 통증이었다. 또한 전체적인 삶의 질 점수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중년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의 질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보인 하부영역은 가족영역으로, 이 시기의 가족이란 삶의 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삶의 질 점수가 낮게 나온 영역으로는, 여성의 경우는 신체적 건강과 기능 영역을, 남성은 사회·경제적 영역이었다.

따라서 향후 중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가족 영역은 더

욱 강화하고,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체적 건강과 기능 영역에,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는 사회·경제적 영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삶의 질 도구는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이미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 받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본 도구를 사용한 논문이 소수에 그쳐서 비교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한국인에게 맞도록 수정·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An, H. M. (2010). *Factors of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Korea male and female adults according to life cycle: By using 4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Anderson, J. S., & Ferrans, D. E. (1997). The quality of life of persons with chronic fatigue syndrome.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5). 359-367.

Choi, W. H. (2006). Factors affecting ego-identity of middle-aged women in Geoje Cit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2). 141-150

Choi, J., & Ha, N. S. (2009). Effects of perceived health status and fatigue on family health in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3*(1). 5-16.

Chung, S. D., & Lee, H. H. (2012). Life satisfaction for baby-boomers: Compare 1998 with 2008.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5,* 106-132.

Ferrans, C. E. (1996). Development of a conceptual model of quality of life.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10*(3), 293-304.

Ferrans, C. E., & Powers, M. J. (1992). Psychometric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index.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5*(1), 29-38. Retrieved at Jan 11, 2012 from http://www.uic.edu/orgs/qli/publications/publicationshome.htm

Ferrans, C. E., & Powers, M. J. (1998). *Description of scoring for the Ferrans and Powers Quality of Life Index (QLI).* Retrieved at Jan 9, 2009 from http://www.uic.edu/orgs/qli/questionaires/pdf/genericversionIII/genericscoring.pdf

Han, S. J.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physical exercise and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8*(1). 14-26.

Jeon, K. S. (2010). *Well-Being of middle-aged Koreans: Development of scales related to happiness and meaning of life, and comparisons between grou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Johnson, J. P., McCaulllet, C., & Copley, J. (1982). The quality of life of hemodialysis and transplant patient, *Kidney International, 22,* 228.

Kim, A. K. (2010). Yangsaeng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HRQOL) in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6*(3), 297-306.

Kim, D. B., & Kwon, J. D. (2000). Human behavior theory and social work. Seoul : Hakjisa.

Lee, E. A. (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middle-aged men's family and work related variables and satisfaction.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6*(3). 547-562.

Lee, I. H. (1999). Modern people's mental health, Seoul: Daewangsa.

Lee, Y. W. (2002). A study of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4), 539-549.

Lim, S. J. (2011). P*erceived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Middle Aged Korean: The Integrated Models Tests Based on the Ecological The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McDowell, I., & Newell, C. (1987). *Quality of life and satisfaction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 Oxford University Press, USA.

Nam, G. (2004). *A Study of Influence of Voluntary Work of the Middle Aged-Women on Their Quality of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gi university, Seoul.

Oh, E. T. (2011). *Effect of health exercise on physical strength level, health crisi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Padilla, G. V., & Grant, M. M. (1985). Quality of life as a cancer nursing outcome variable, *Advanced in Nursing Science, 3*(4), 43-59.

Seo, Y. (2010). A study on Middle aged men and women's health behavior and healthstatus. *Social Welfare Review, 15*, 35-51.

Shin, K., & Yang, J. (2003). 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women living in rural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7), 999-1007.

So, H. S., Lee, W. H., Lee, E. H., Chung, B. Y., Hur, H. K., & Kang, E. S. (2004) Validation of quality of life index-cancer among Korean patients with cancer.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34*(5), 693-701.

Statistics Korea (2011). *Population Projections: 2010~2060.*

Sunwoo, D. (2011). Health status and long-term care need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74,* 19-27.

Szalai (1980). *The meaning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 Safe Publications Inc. USA.

Tseng, S. Z., & Wang, R. H. (2001). Quality of life and related factors among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in southern Taiwan. *Public Health Nursing, 18*(5), 304-311.

Young, K. J., & Longman, A. J. (1983). Quality of life and persons with melanoma: A pilot study, *Cancer Nursing, 6(3),* 219.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of Middle aged Women and Men

Han, Suk Jung[1)] · Kwon, Myung Soon[2)] · Yoon, Oh Soon[3)]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3)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Health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quality of life(QOL) between middle-aged women and men. **Method:** In this study, we surveyed 482 middle-aged women and men living in Seoul aged between 40 and 64. Data were analyzed t-test, χ^2-test, and 2-way ANOVA.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the life of middle-aged women and men of the overall. However, while the case of middle-aged wome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motional support from people who are not family members, middle-aged m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life with spouse, the ability to take care of family responsibilities, sex life, energy(fatigue), personal appearance, and pain. In additio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scores showed no gender difference between the middle-aged women and men but in the quality of life both genders, the family area of the sub-area showed high scores.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repetitive studies for middle-aged women and men are needed by using the same tool of this study and various health promotion program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uld be developed for middle-aged.

Key words : Quality of Life, Middle aged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won, Myung Soon*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39 Hallymdaehak-gil, Chuncheon, Gangwon-do, 200-702, Korea
Tel: 82-33-248-2719 Fax: 82-33-248-2734 E-mail: kwon1314@hallym.ac.kr